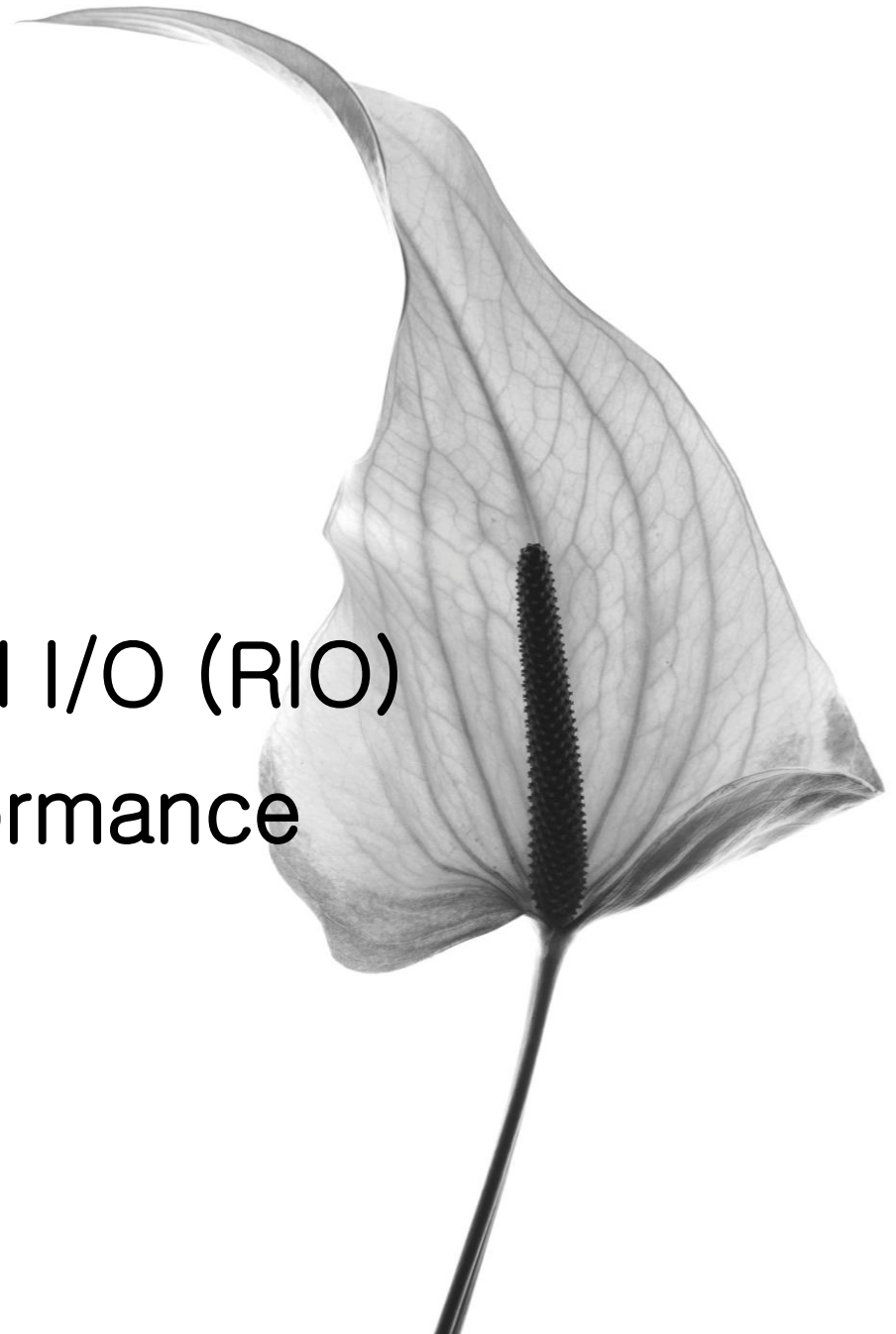


NHN INSTITUTE FOR THE
NEXT NETWORK

Windows Registered I/O (RIO) Introduction & Performance

Seungmo Koo (@sm9kr)

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서버 제작자 모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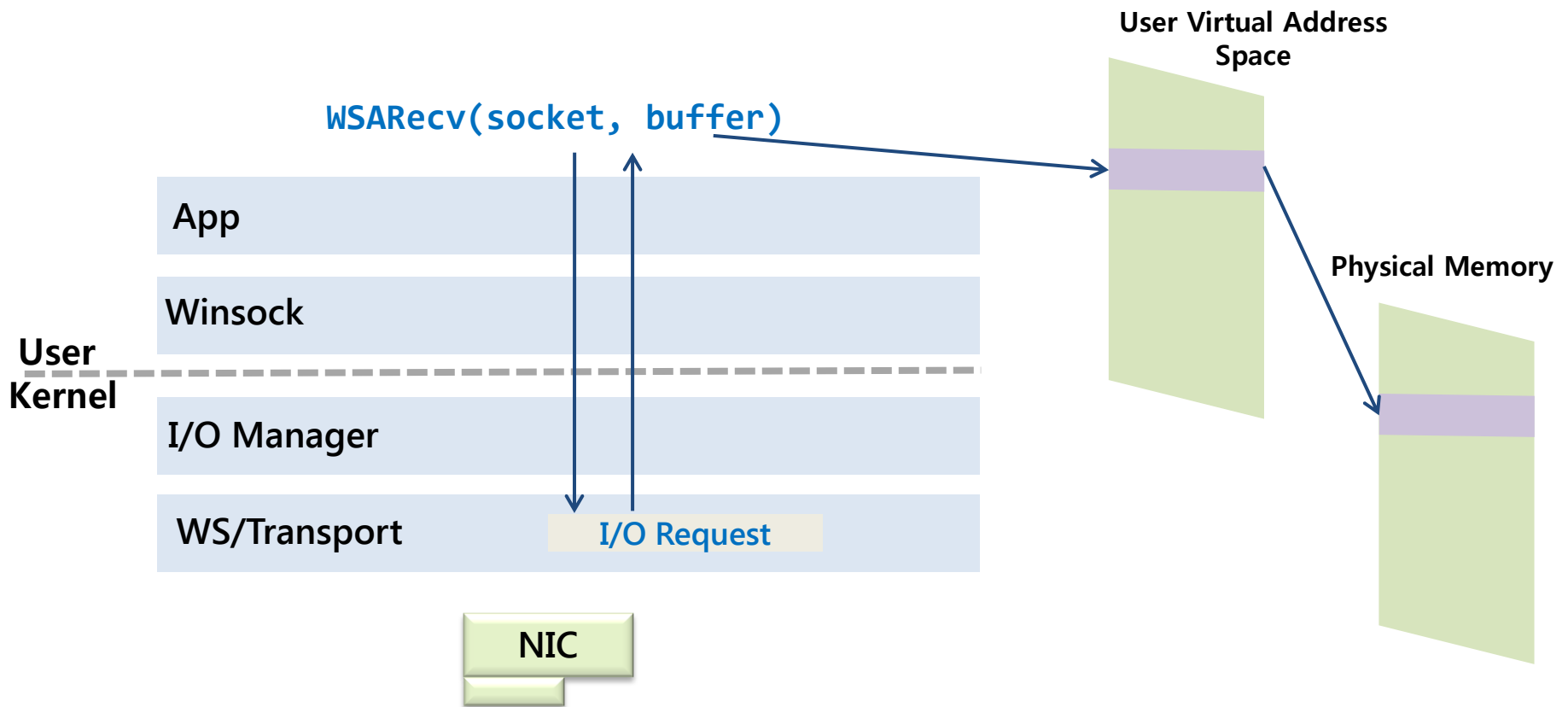
Agenda

- IOCP: I/O Completion Port
- RIO: Registered I/O Network Extensions
- 성능 평가
- 결론
- Source Code Sample

- 다들 잘 아시는 것
 - Proactor 방식의 고성능 I/O Notification Model
 - 비동기 I/O 지원
 - Windows OS가 직접 효율적인 스레드 풀링 제공
 - context-switching을 줄이는 효과
 - Overlapped I/O 지원
 - 커널영역과 유저영역의 버퍼 공유 (memory page-locking)
- 그럼에도 불구하고,
 - 하나의 I/O operation마다 버퍼 영역에 대한 page-lock/unlock
 - 특정 메모리에 대한 Pin/Unpin은 많은 CPU cycle요구
 - 그래서 RECV를 posting 할 때, page-locking을 피하여 CPU cycle을 줄이기 위해 zero-byte recv 꼼수를 사용해왔음
 - 하나의 I/O operation마다 시스템콜 호출
 - 유저모드-커널모드 전환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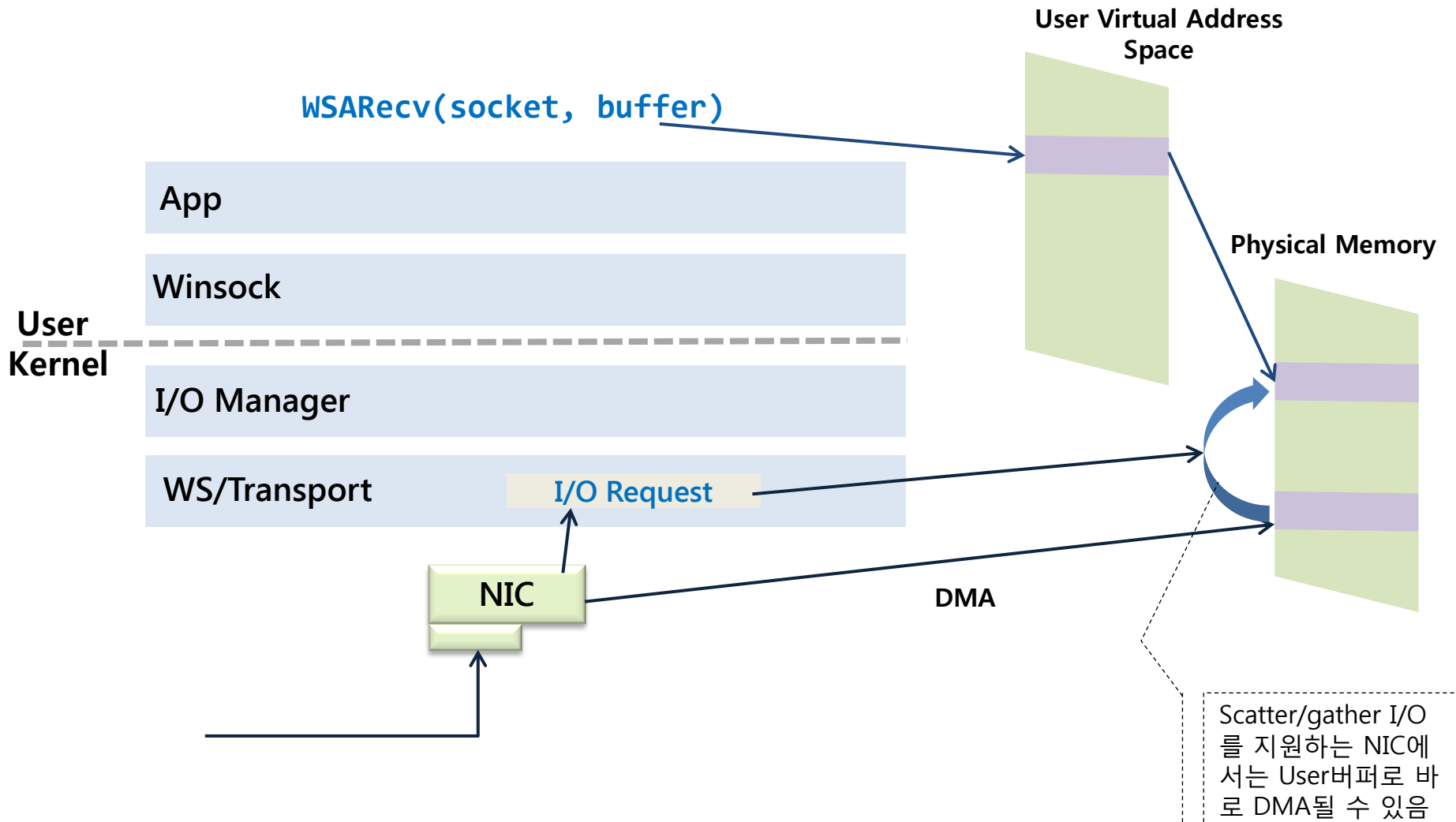
IOCP 동작구조

- 기본적인 처리 흐름
 - I/O initiation → I/O processing → I/O completion
- I/O Initiati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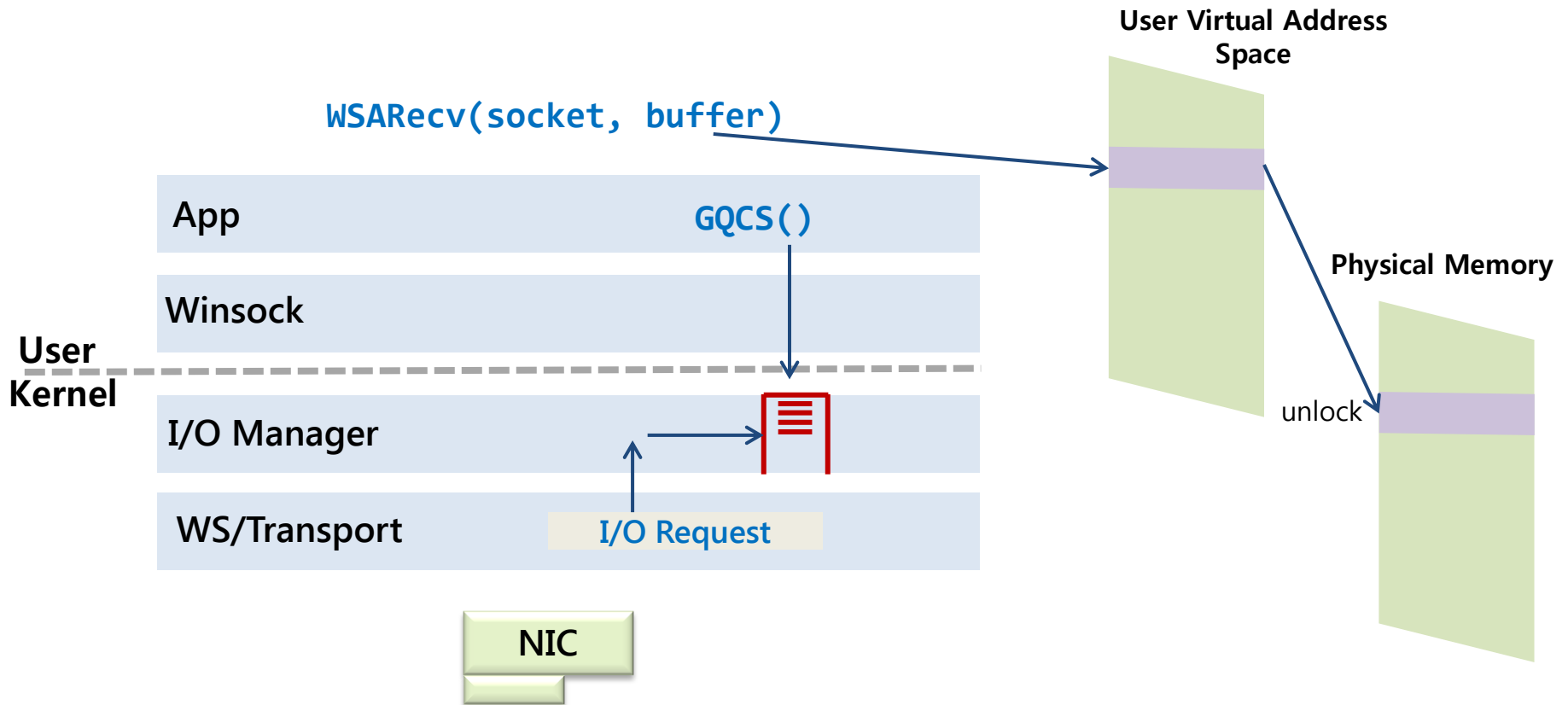
IOCP 동작구조

- I/O Processing



IOCP 동작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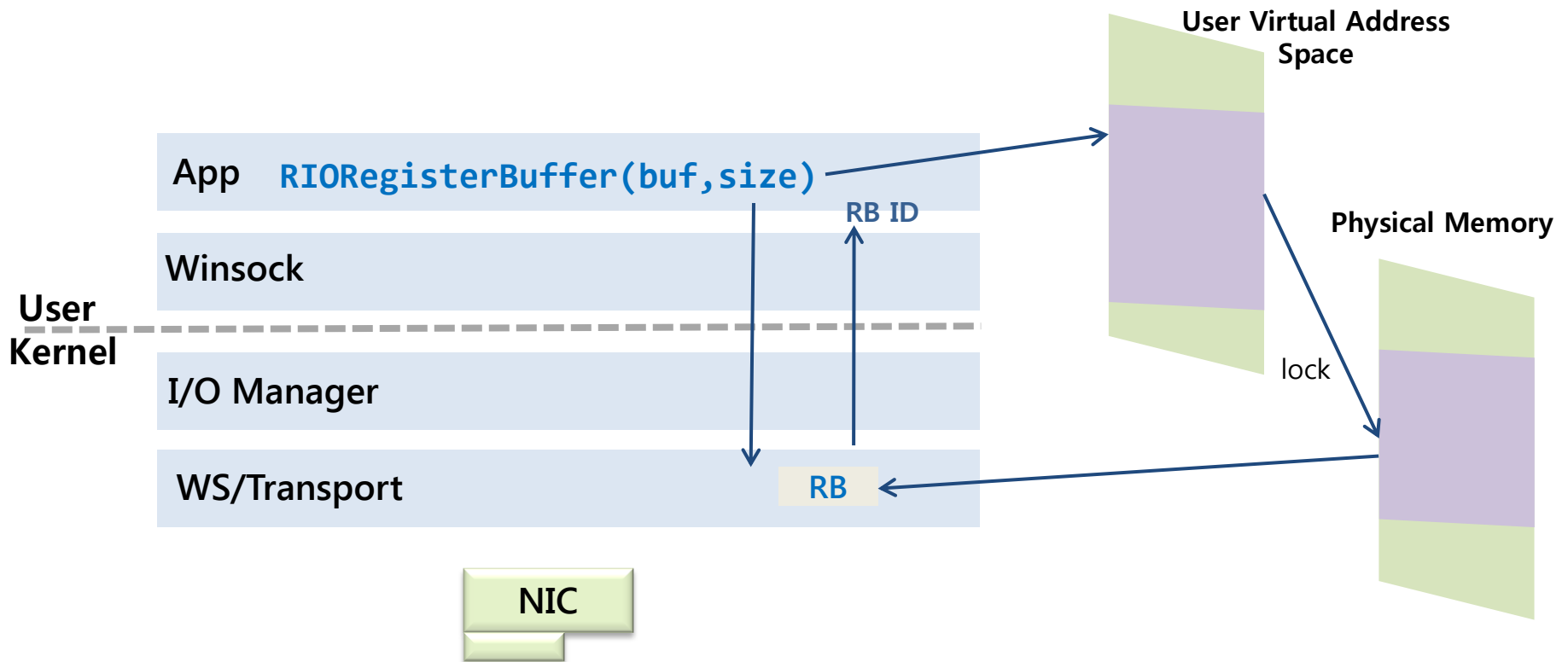
- I/O Completion



- Lower latency and jitter를 위해
 - 지연의 최소화 및 튀지 않는(?) 안정성 (예측가능성)
 - (예) 북미의 주식시세 정보 방송: 초당 5백만 업데이트 필요
 - (예) Database 서버나 UDP 스트리밍 같은 곳에서는 초당 패킷 처리량이 높을수록 최고의 성능을 뽑음
 - 엄청난 수의 작은 패킷 처리에 유리함 (by MS)
- 특징
 - I/O에 사용할 고정 크기의 버퍼를 등록하는 개념
 - 물리 메모리에 필요한 버퍼를 항상 pin해놓고 쓰기 때문에 매번의 I/O마다 page-lock/unlock이 없음
 - 메모리 사용량과 CPU사용량간의 Trade-off
 - I/O 버퍼 핸들링을 실제 I/O에서 분리하여 I/O 비용 감소 시킴
 - RIO에서는 커널 소켓 버퍼는 의미 없음
 - SO_SNDBUF, SO_RCVBU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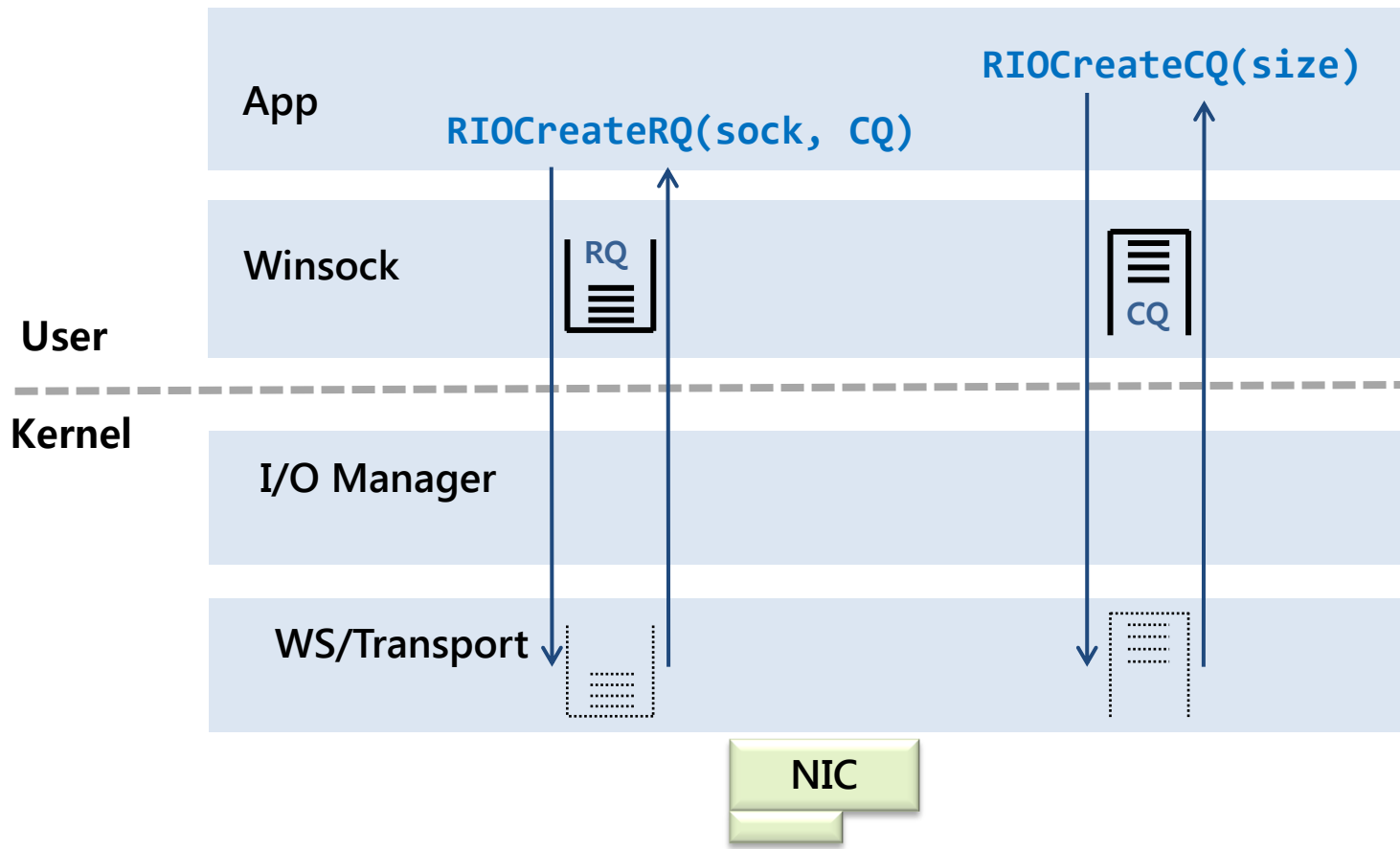
RIO Buffer 등록

- RIO에서 사용할 고정 버퍼 등록 과정
 - RB: User영역과 Kernel영역이 공유하는 페이지로 PIN됨
 - RIODeregisterBuffer하기 전까지 계속 lock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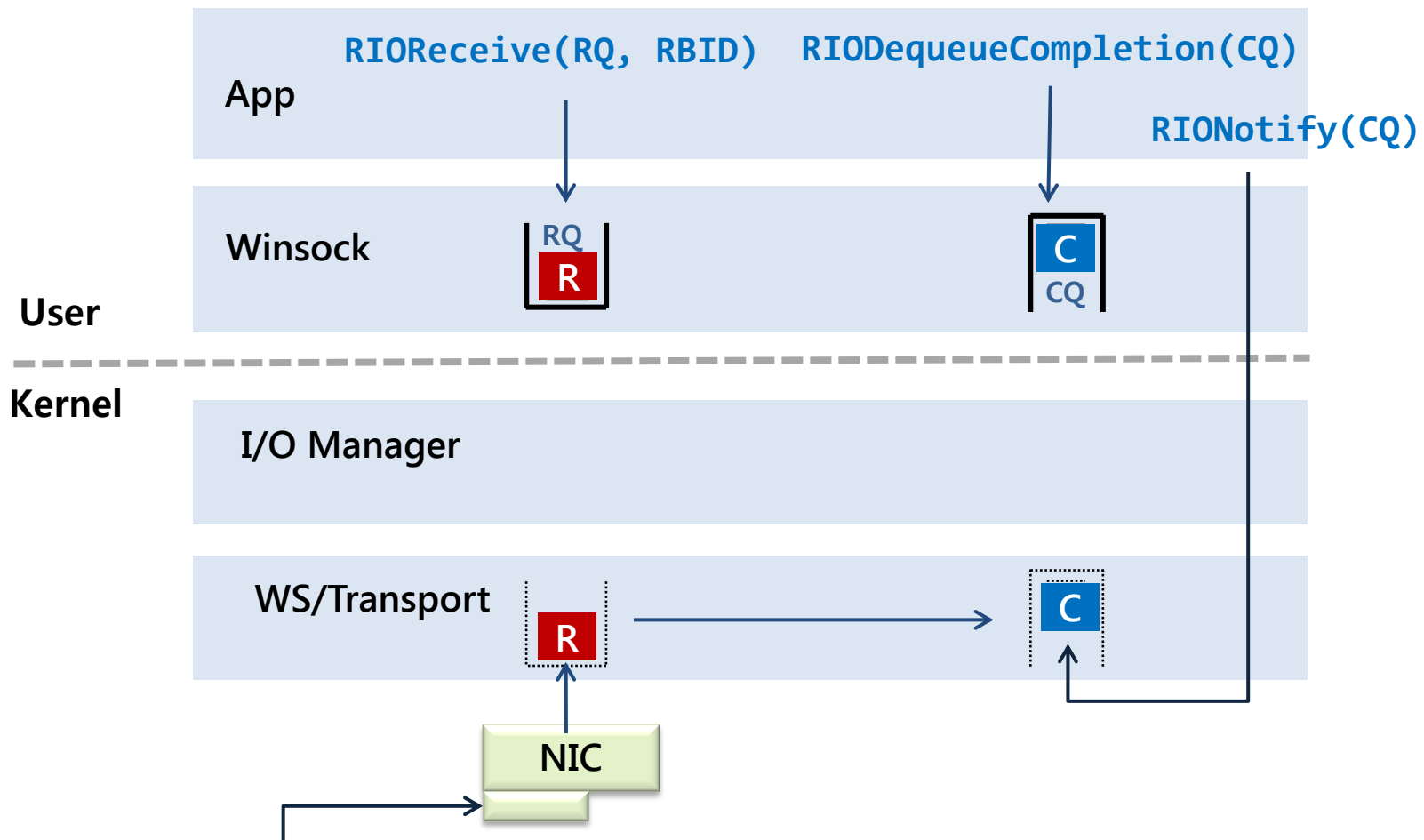


RIO RQ/CQ 등록

- RIO에서 사용할 고정 크기의 RQ 및 CQ 등록
 - 모든 I/O요청은 RequestQueue (RQ)를 통해 이루어짐
 - I/O 완료에 대한 통지는 CompletionQueue (CQ)를 통해 처리



- I/O 처리 과정
 - DequeueCompletion시 복수개의 I/O완료 통지가 올
 - 한번의 과정으로 CQ에 큐잉되어 있던 여러 개의 I/O 처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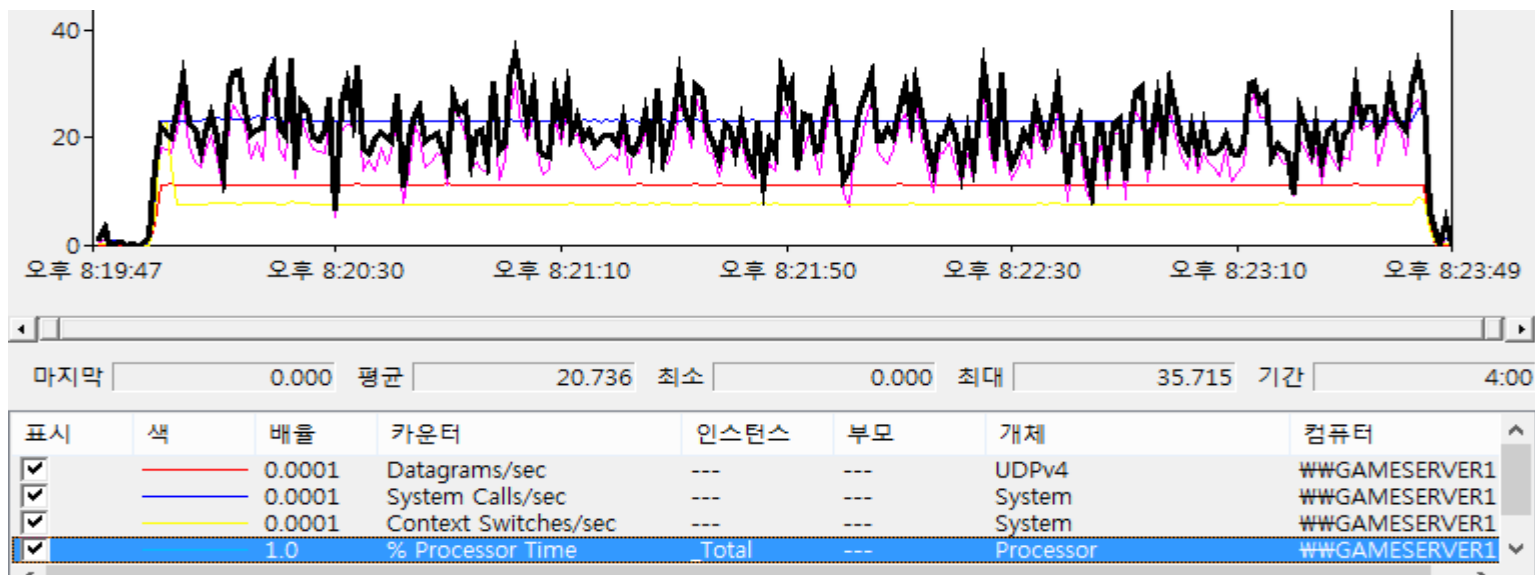
- MS의 성능평가
 - RIO 사용시 Latency가 15~30% 가량 줄어들었다고 함
 - RIO 사용시 Throughput이 최대 2배 되었다고 함 (Datagrams/s)
- 직접 해본 성능평가 (IOCP vs RIO)
 - 사용 장비
 - 클라이언트: i7-4770k, 16GB RAM, 1Gbps LAN, Windows 8
 - 서버: Mac-mini server 2012 late, Windows Server 2012
 - 1024 byte UDP 패킷 5천만개 전송 테스트
 - IOCP와 RIO의 경우 모두 1Gbps 대역 full로 활용함
 - 그러다보니 두 경우 모두 throughput과 UDP 드랍률이 비슷
 - » 즉, 의미 있는 결과 못냄 (10Gbps 대역에서는 차이가 많이 날 듯?)
 - 그러나, 같은 상황에서
 - RIO가 CPU사용률 약 2배 낮았음
 - RIO의 context-switches/sec가 6배 가량 낮았음

CPU Usage

NHN
NEX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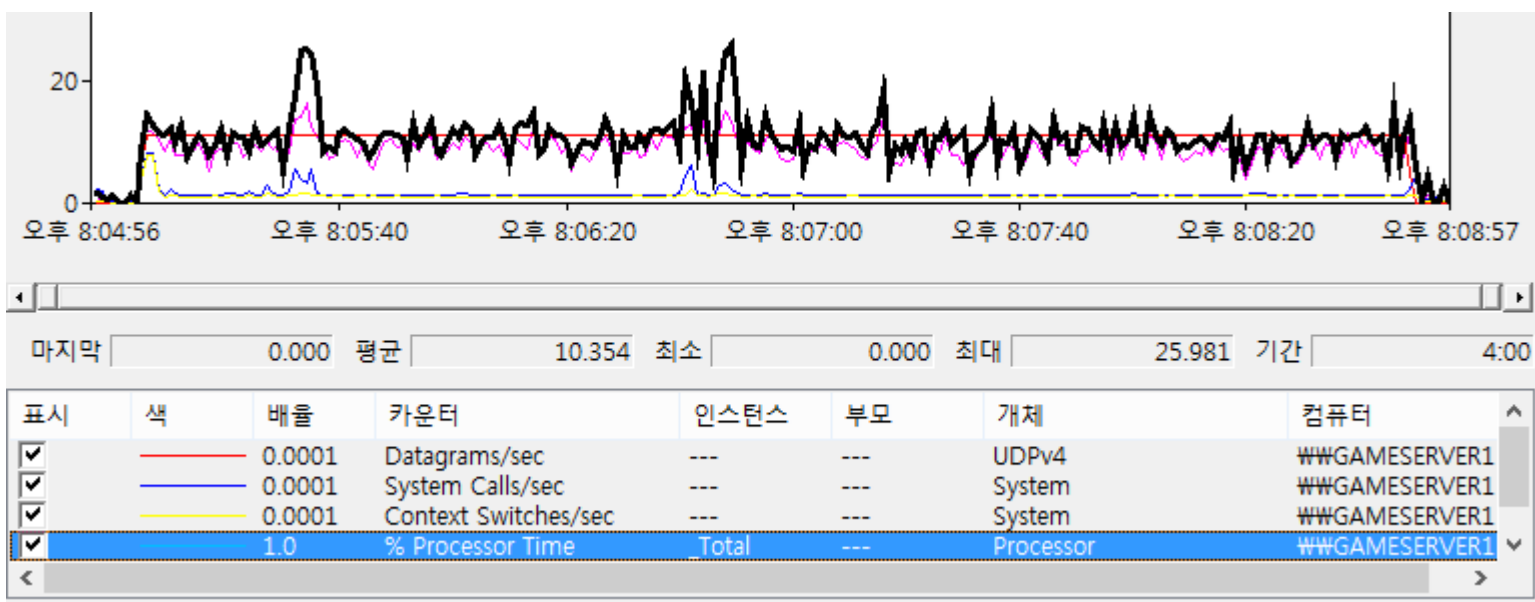
IOCP

약 20%



RIO

약 1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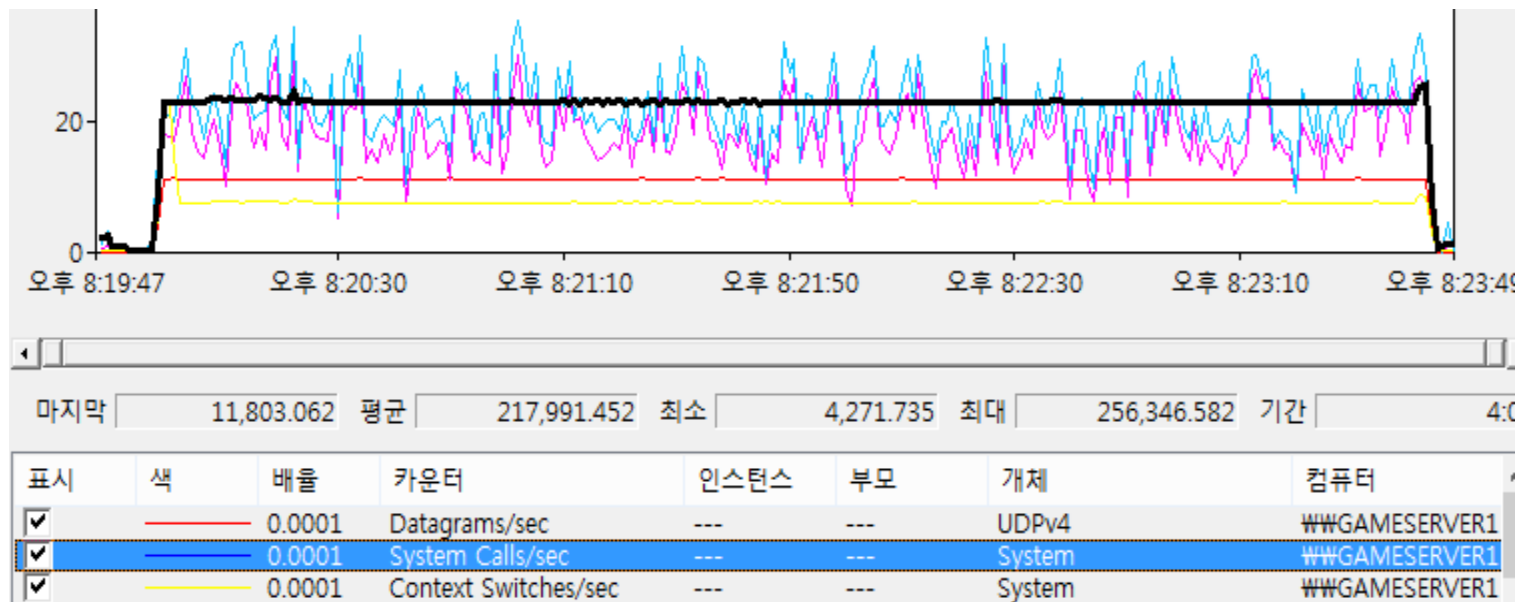


System Calls Per Second

NHN
NEX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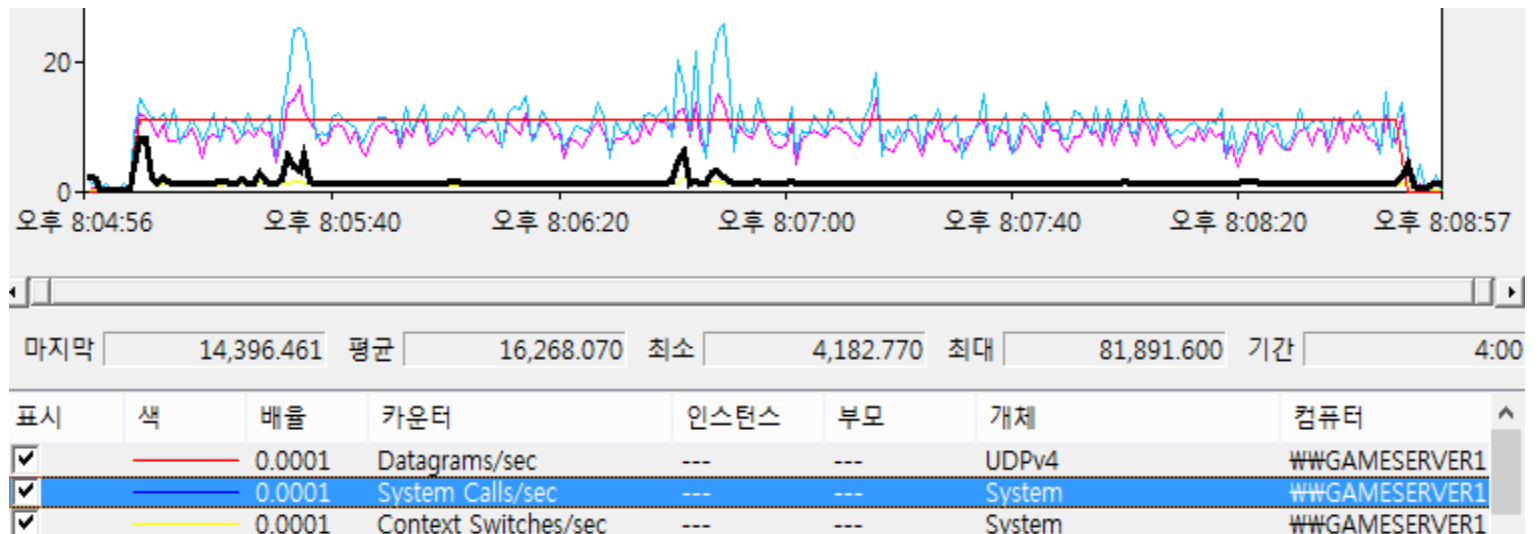
IOCP

217,991,452



RIO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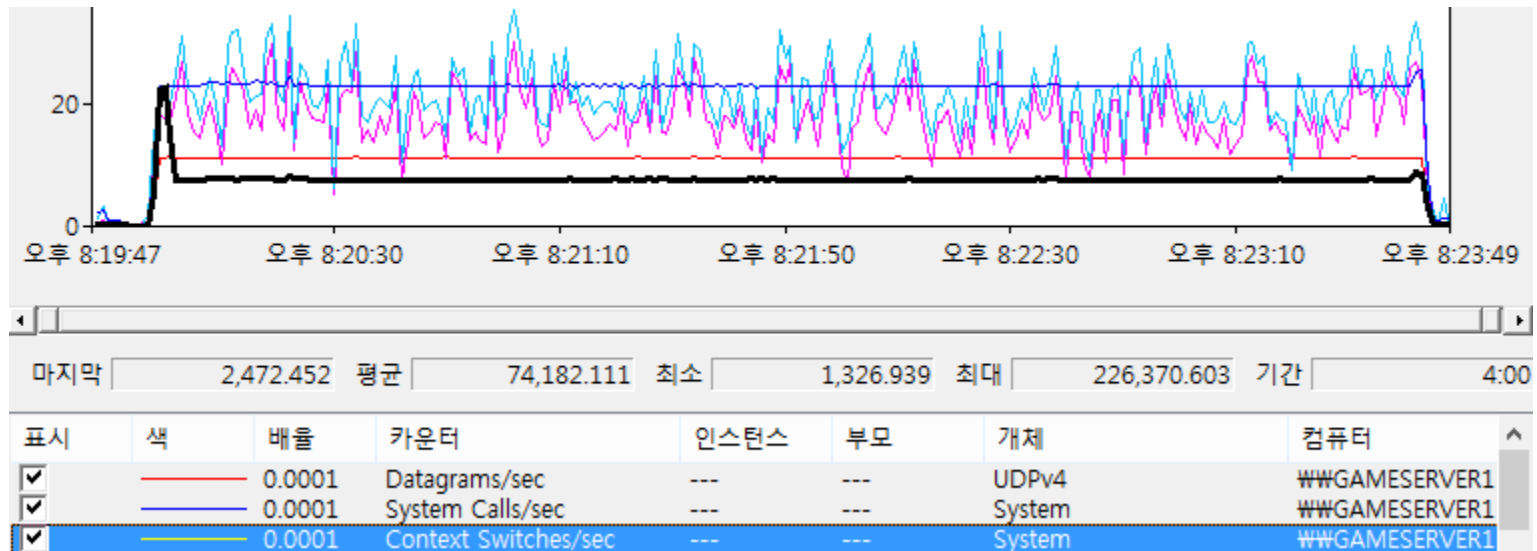
16,268,070



Context Switches Per Seco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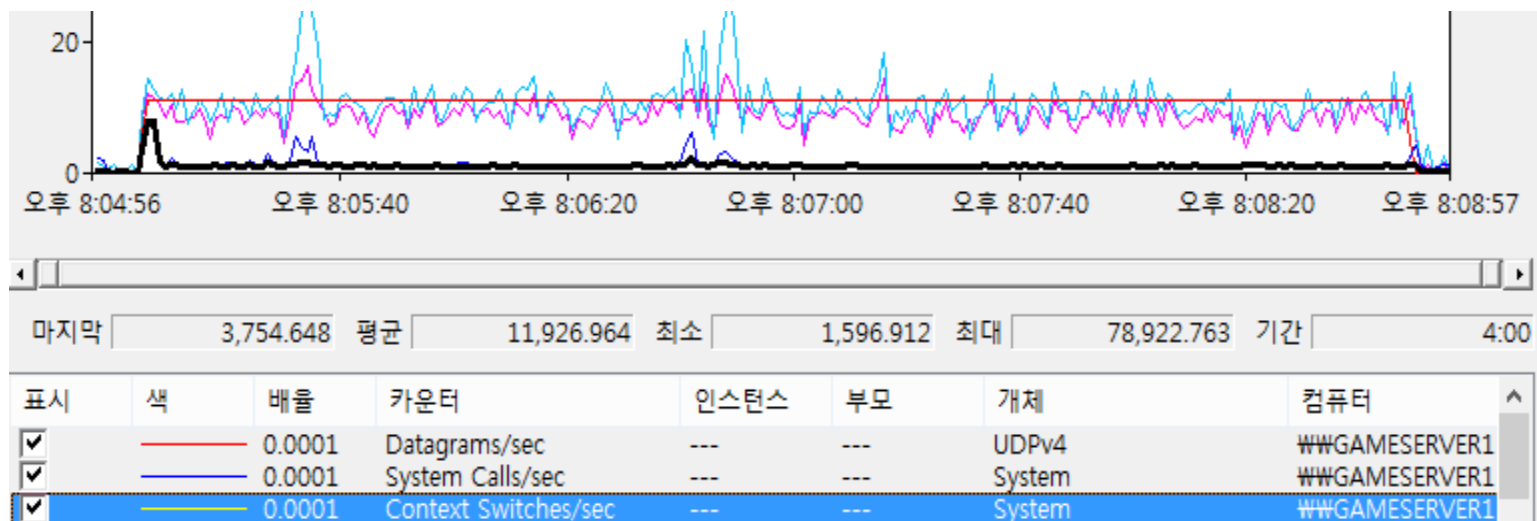
NHN
NEXT

IOCP



74,182,111

RIO



11,926,964

- RIO가 성능은 확실히 좋음
 - Throughput: MS에 의하면 2배 가량 좋아진다고 함
 - CPU 사용률 등: 직접 성능 테스트 결과 월등히 좋음
 - Context-switching 및 System call 횟수도 훨씬 낮음
- 그런데...
 - 굳이 고성능 게임 서버용으로 RIO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?
 - 점점 좋아지는 머신 성능, 더 복잡한 코딩 방법, MS 플랫폼 종속, ...
 - Gigabit 네트워크 상에서의 throughput의 경우에
 - IOCP 뿐만 아니라 Linux의 EPOLL과도 별 차이 없었음
 - 게임 서버당 Gigabit 이상의 대역이 필요한 경우 다시 생각해봐도?
 - 트래픽이 많은 게임서버라고 해봤자 300~400Mbps 정도
 - 이 정도의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, CPU 사용률의 차이도 적어짐

- 어디에도 제대로 된 샘플 코드가 없어서 직접 구현
 - MSDN 문서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
 - 수많은 삽질...
 - 최소한의 동작을 위한 코드만 들어 있음
 - 버그에 대한 책임 없음
- Source Code: RIO Echo Server
 - TCP, RIO only
 - <https://github.com/zeliard/RIOTcpServer>
 - UDP, IOCP+RIO
 - <https://github.com/zeliard/RIOEchoServer>

[Update] RIO 사용시 주의할 점

- RIO의 이벤트 통지
 - IOCP 또는 윈도우 Event를 이용하여 I/O 이벤트 통지를 받을 수 있지만 추천하지 않음 → 시스템 콜 횟수가 늘어나서 성능 저하
 - 앞의 성능 평가는 IOCP를 이벤트 통지 모델로 사용한 경우였음
 - 이렇게 해도 컨텍스트 스위칭이 6배 가량 낮았지만,
 - IOCP와 같은 이벤트 통지 없이 순수 RIODequeueCompletion만을 이용하는 것이 최고의 성능을 냄. 단, Sleep or WaitableTimer등을 이용하여 CPU 사용을 낮추는게 필요 (TCP버전의 소스코드 참고)
- Request/Completion Queue
 - Thread-safe하지 않기 때문에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
 - (예) 세션 별로 특정 전담 thread 할당
 - CQ는 thread별로, RQ는 socket별로 만드는 것이 구조 및 효율면에서 좋음
- NUMA 장비에서 RIO
 - RIO가 user-level communication 방식인 관계로 타 CPU의 코어를 골고루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Tech to Develop Low Latency Apps, Build 2011.
 - <http://channel9.msdn.com/Events/Build/BUILD2011/SAC-593T/player?w=960&h=544>
- The Server Framework
 - <http://www.serverframework.com/asynchronousevents/rio/>